



## 루마니아 선교편지

제 53 호

2017. 7. 3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안식월**을 계획하고 저와 예진이가 먼저 출국하는 날 새벽, 남편은 2년 전부터 가끔 나타나는 저혈당쇼크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을 가면 출국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 판단이 어려운 때에 집에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제가 없는 동안에 특히 수면 중 나타날 수 있는 쇼크 상황을 대비해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출국을 했습니다.

저와 예진이 6개월, 남편 3개월의 안식월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시작부터 일어나는 일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도하며 오는 걸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기 검진 외에는 특별한 치료 계획이 없던 예진이는 대퇴골에 심이 빠져 있어 양쪽 제거 수술을 했는데, 심이 뼈와 협착되어 힘든 수술을 받았고, 대장에서 발견된 흑색 대장암(완치가 되는 초기암)으로 진단되어 두 번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는데 많은 검사로도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았으나 결국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양성) 진단하에 개복 수술로 인슐린을 뿜어내는 종양을 제거하고 회복중에 있는데, 오늘은 췌관을 보호하기 위해 삽입한 스텐트를 제거하러 갑니다. 이렇게 저희가 처음 갖는 안식월이 끝나 갑니다. 그러나 아파도 형편이 어려워 치료 받을 수도, 희망도 없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최고의 시설에서 치료받는 것이 참 미안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일들, 우리 주변에 또 병원을 오가며 누군가의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외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은 늘 완전하기에 이미 주신 충분한 은혜에 넉넉히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지금 우리로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연락도 못 드리고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지만,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여름 사역을 위해

#### 1. 단기 선교 팀 방문:

1)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인교회에서 선교지 상황을 정탐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돕기 위해 7월 22일~ 29일까지 방문합니다. 팀을 나누어 4개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도와 양육의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뉴욕 CMC교회- 대학 캠퍼스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인데 7월 29일~ 8월 6일까지 방문하여 그동안 기도해 오던 선교지를 돌아보며 서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를 품고 열심히 기도해주시던 교회들인데, 주일학교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도전하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청소년 여름 캠프

청소년들에게 말씀과 은혜의 잔치로 매년 진행되어 오는데, 올 해는 8월 28일~9월 2일까지 펠디와라 교회와 아라치 교회, 아리우슈드 교회의 청소년들, 그리고 브라쇼브 근교의 소규모

교회의 청소년들을 모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3. 교사 양성학교

브라쇼브 근교의 집시교회를 보면 겨우 성도 몇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주변에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대부분 직장이 있고, 또 주일 학교를 하기에는 나이나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학교 교사 후보생을 추천받아 9월 4일~9월 8일까지 숙식하며 교사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이들이 교육을 통해 도전 받고 결단하여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한 지속적인 관찰과 도전, 필요한 도움을 주어 어찌하든지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 4. 섬기는 주일학교 사역

유럽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흐름은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 기독교적 가치관과는 동떨어진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요즘 세대들의 생활 방식은 매스미디어나 인터넷등을 통해 유럽의 변방인 루마니아의 청소년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을 바로 보고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 준비와 훈련, 그리고 영적 도전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아라치 교회, 아리우슈드 교회의 주일학교는 큰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 펠디와라 교회의 청소년 중에 수 년 동안 잘 자라왔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갖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일은 펠디와라 교회에서 잘 양육되었던 '치오비'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어린이 사역자로 전 생애를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펠디와라 교회당 구입에 필요한 재정

후원 교회와 귀한 분들의 헌신으로 중도금을 지불하고, 일부분을 수리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불해야 할 잔금 3천만원과 수리비가 채워지면 됩니다. 미약하지만 펠디와라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사로 세워져 주변의 약한 교회의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음이 참 감사하고 더욱 이 교회를 통해 소망 없는 아이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서 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펠디와라 지역은 특히나 로또, 술집과 오락 시설이 급증하며 유난히 교통사고와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 지도자 기도모임과 뜨르너베니 교회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의 교회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며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기도모임으로 세워져가기 원합니다. 뜨르너베니의 가난한 집시 교회를 섬기는 파네 전도사와 준리더들이 더욱 열심을 내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되어 섬김으로 이전보다 더욱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 기도제목

1. 계획된 여름 사역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2. 펠디와라 교회 예배당 구입 잔금이 속히 채워지고 필요한 만큼 수리되도록

3. 현재 진행중인 주일학교가 잘 세워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교회에서 시작되도록
4. 가족의 육의 건강이 잘 회복되고, 든든한 믿음의 군사들로 서 있도록

\* 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예금주:GMS배만주) LG 070 8625-7488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며”**

루마니아 배만주.이명자(수진,경진,예진)선교사